

2020년 서울시 9급 기술직 한국사(B책형) 정답해설

1. <보기>의 밑줄 친 ‘그’의 저술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그는 당나라로 가던 도중 진리는 마음속에 있음을 깨닫고 유학을 포기하였다. 여러 종파의 갈등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융화, 통일시키려 하였으므로, 훗날 화쟁국사(和諍國師)로 추앙 받았다.

- ① 『해동고승전』 ② 『대승기신론소』
③ 『왕오천축국전』 ④ 『화엄일승법계도』

정답 : ②

밑줄 친 ‘그’는 원효이다.

② 원효는 아미타 정토 신앙을 바탕으로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였고,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화쟁 사상을 제시하고 『대승기신론소』, 『금강삼매경론』, 『화엄경소』 등을 통해 이론을 정립하였다.

① 『해동고승전』은 무신 정권기 교종의 승려인 각훈이 삼국시대 승려 30여 명의 전기를 수록한 서적이다. ③ 혜초는 당, 인도,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아라비아 등 서역까지 다녀 온 뒤 기행문인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 ④ 의상은 『화엄일승법계도』를 중심으로 화엄 사상을 강의하면서 조직화된 화엄 교학의 체계를 전수하였다.

<보기>

7. 대통령 3회 연임 허용
 ㄴ. 대통령 직선제 및 5년 단임
 ㄷ. 대통령 직선제, 국회 양원제
 ㄹ.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간선

- ① 7-1-2-4 ② 1-4-7-2
③ 4-7-2-1 ④ 2-1-4-7

정답 : ③

다. 1952년 이승만 정권은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국회 단원제를 양원제로 고치는 발췌 개헌을 추진하였다. ㄱ. 1969년 박정희 정권 때인 제6차 개헌에 대한 내용이다. ㄴ. 1972년 공포된 유신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삼으면서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폐지하고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간선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였다. ㄷ. 1987년 6·29 선언을 계기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주골자로 하는 9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3. <보기>의 글을 쓴 학자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검소하다는 것은 물건이 있어도 남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자신에게 물건이 없다 하여 스스로 단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는 구슬을 캐는 집이 없고 시장에 산호 따위의 보배가 없다. 또 금과 은을 가지고 가게에 들어가도 떡을 살 수 없는 형편이다. …… 이것은 물건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용할 줄 모르니 생산할 줄 모르고, 생산할 줄 모르니 백성은 나날이 궁핍해지는 것이다.

- ① 균전론을 내세워 사농공상 직업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여 자영농을 육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 ② 상공업을 육성하고 선박, 수레, 벽돌 등 발달된 청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고 제안하였다.
- ③ 처음에는 여전론, 이후에는 정전제를 내세워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하였다.
- ④ 통일 신라와 발해가 병립한 시기를 남북국 시대로 설정하여 발해를 우리 역사의 체계 속에 적극적으로 포용하였다.

답 : ②

제시된 사료는 소비를 강조한 박제가의 글이다.

② 박제는 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의 발전이라는 현실을 인정한 기반 위에서 상업·수공업·농업 전반의 생산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경제 체제를 새롭게 건설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청에 다녀온 후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제창하였다. 또한 상업의 발달, 청과의 통상 강화, 수레와 선박의 이용 등을 역설하였다. 그는 생산과 소비와의 관계를 우물물에 비유하면서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① 유형원은 균전론에서 토지 공유를 기초로 농민 한 사람에게 1경의 땅을, 유사(儒士)와 관리에게는 2~12경의 토지를 분배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신분제에 따라 토지를 차등 지급하는 형태였다. ③ 정약용은 처음에는 여전론을 주장하였으나 이후 정전의를 저술하여 현실적 방법의 정전제 실시를 주장하였다. ④ 유득공은 『발해고』에서 발해와 신라를 병립시켜 ‘남북국 시대’를 제시하였다.

4. 조선 후기 광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의 통제 정책으로 잠채가 사라졌다.
- ② 자본과 경영이 분리된 생산 방식이었다.
- ③ 청과의 무역으로 은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 ④ 17세기 이후 민간인의 광산 채굴을 허용하였다.

정답 : ①

① 조선 후기인 17세기에 이르러 설점수세제가 시행되면서 민영 광산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국가의 허가 없이 몰래 채굴을 하는 잠채가 성행하였다.

② 조선 후기 광산 운영은 대상인인 물주가 광산 경영 전문가인 덕대에게 자본을 공급하면 덕대는 채굴업자인 혈주와 채굴 노동자·제련 노동자 등의 임노동자를 고용하여 광물을 채굴하고 제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③, ④ 조선 후기에 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는 과정에서 은의 수요가 증대되면서 은광 개발이 활기를 띠게 되자 민간에 광산 채굴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17세기 효종 때는 민간의 광산 채굴을 허용하는 설점수세제를 실시하였다.

5. 고려의 지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양계 지역은 계수관이 관할하였다.

ㄴ. 수령이 파견된 주현보다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의 수가 많았다.

ㄷ. 성종 때 12목이 설치되었다.

ㄹ. 향·소·부곡 등의 특수행정조직이 있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 ④

ㄴ. 속현은 지방관이 상주하지 않은 주군현(州郡縣) 지역을 통칭하는 것으로 고려 전기에는 주현이 130개, 속현이 374개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았다. ㄷ. 고려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하여 12목을 중심으로 목사를 파견하였다. ㄹ. 고려 시대에는 향·부곡·소 등의 특수 행정 구역이 있었다. 이곳의 주민들은 신분상으로는 양인이었으나 일반 양인에 비해 더욱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등 가혹한 차별을 받았다.

ㄱ. 고려 시대에는 국경 지대에 군사 행정 구역인 양계(동계, 북계)를 설치하고 지방 장관으로 병마사를 파견하였다.

6. <보기>의 ㉠에 해당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의 노비인 만적 등 여섯 명이 북산(北山)에 나무하러 갔다가 공사(公私) 노비들을 모아 놓고 말하기를, “장군과 재상이 어찌 타고난 씨가 따로 있겠는가? 때만 만나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라고 어찌 빠 빠지게 일만 하고 채찍 아래에서 고통만 당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중략) “각자 자기 주인들을 때려 죽이고 노비 문서를 불태워버리자. 이로써 이 나라에 다시는 천인이 없게 하면, 공경장상을 우리들이 모두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①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국정을 장악하는 한편 도방을 통해 군사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 ②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해방하였다.
- ③ 풍수지리설을 앞세워 서경천도를 적극 추진하였다.
- ④ 딸들을 왕에게 시집보내어 권력을 잡고 척준경과 함께 난을 일으켰다.

정답 : ①

제시된 사료는 만적의 난과 관련된 것으로, ㉠은 최충헌이다.

- ① 최충헌 집권기에 설치된 교정도감은 정적 제거 기구로 설치되었으나, 점차 국가 최고 기구로 발전하였다. 또한, 최충헌은 경대승 때 설치되었던 사병 집단인 도방을 다시 확대 설치하여 신변을 경호하고 무단 정치를 강화하였다.
- ② 노비안검법은 본래 양인이었는데 노비가 된 사람을 조사하여 다시 양인으로 만들기 위해 광종 대인 956년에 실시한 법이다. ③ 묘청은 풍수지리설을 내세워 서경에 대화궁을 건립하고 천도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④ 예종이 죽고(1122) 14세의 어린 임금 인종이 즉위하자, 이자겸은 척준경과 함께 자신을 반대하던 한안인을 비롯한 왕의 측근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해 나갔다. 이에 위기를 느낀 인종이 척준경의 측근 등을 처형하자, 이자겸과 척준경은 궁궐에 불을 지르고 반대파를 제거한 뒤 모든 실권을 장악하였다(이자겸의 난, 1126).

7. <보기>의 사설이 발표되는 계기가 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보기>

…… 그러나 슬프도다. 저 개돼지만도 못한 이른바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하였던 것이다. 아, 4,000년의 강토와 500년의 사직을 다른 나라에 갖다 바치고, 2,000만 국민을 타국의 노예가 되게 하였으니, ……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2,000만 타국인의 노예가 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 기자 이래 4,000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 ① 친러 성향의 내각이 수립되어 러시아의 정치적 간섭이 강화되었고, 열강의 이권 침탈도 심해졌다.
- ② 러일전쟁 승리 이후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조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들었다.
- ③ 일본은 헤이그 특사 파견을 문제 삼아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 ④ 총리 대신 이완용과 조선 통감 데라우치 사이에 조약이 체결되어 국권을 상실하였다.

정답 : ②

제시된 사료는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후 장지연이 『황성신문』에 게재한 「시일야방성대곡」의 일부이다.

- ② 1905년 을사조약 체결로 통감부가 설치되었으며, 대한 제국은 이 조약의 체결로써 외교권을 박탈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의해 내정 간섭을 받게 되었다.

① 아관 파천기의 내용이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긴 이후 러시아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었고,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의 이권 침탈도 심화되었다. ③ 일제는 헤이그 밀사 파견을 명분으로 1907년 7월 19일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정미 7조약의 비밀 각서에 따라 7월 31일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④ 1910년 체결된 한·일 병합 조약에 대한 내용이다.

8. <보기>의 고려 토지제도 (가)~(라) 각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가)	조신(朝臣)이나 군사들의 관계(官階)를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성품, 행동의 선악(善惡), 공로의 크고 작음을 보고 차등 있게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나)	경종 원년 11월에 비로소 직관(職官), 산관(散官)의 각 품(品)의 전시과를 제정하였다.
(다)	목종 원년 12월에 양반 및 군인들의 전시과를 개정하였다.
(라)	문종 30년에 양반전시과를 다시 개정하였다.

- ① (가) - 후삼국 통일 전쟁에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하였다.
- ② (나) - 인품을 반영하여 토지를 지급하였다.
- ③ (다) - 실적이 없는 산관은 토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④ (라) -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가 지급되고, 문·무관의 차별이 거의 사라졌다.

정답 : ③

(가)는 태조 때 지급한 역분전, (나)는 경종 때의 시정 전시과, (다)는 목종 때의 개정 전시과, (라)는 문종 때의 경정 전시과이다.

③ 현직 관리에게만 전시를 지급하게 되면서 산관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경정 전시과 때의 사실이다.

① 태조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한 후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공신과 군인 등을 대상으로 논공행상적 성격의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② 시정 전시과는 관등의 고하와 함께 인품을 반영하여 토지를 지급하여 역분전의 성격을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하였다. ④ 경정 전시과는 개정 전시과에 비해 토지 분급량이 더욱 축소되면서 15과 이하로는 시지가 지급되지 않았고, 거란과의 항쟁 과정에서 무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나 직역이 고역(苦役)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9. <보기>의 정책이 시행된 왕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백성들이 육전[육의전(六矣廛)] 이외에는 허가받은 시전 상인들과 같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제공이 아뢰기를 “(전락) 마땅히 평시서(平市署)로 하여금 20, 30년 사이에 새로 벌인 영세한 가게 이름을 조사해 내어 모조리 없애도록 하고, 형조와 한성부에 분부하여 육전이 아니라면 난전이라 하여 잡혀 오는 자들을 처벌하지 말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잡아 온 자를 처벌하시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서로 매매하는 이익이 있을 것이고 백성들도 가난에 대한 걱정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 원망은 신이 스스로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니 왕께서 따랐다.

- ① 법령을 정비하여 속대전을 편찬하였다.
- ② 청과 국경선을 정하고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 ③ 조세제도를 개편하여 영정법을 시행하였다.
- ④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였다.

제시된 사료는 정조 때 실시된 신해통공에 대한 내용이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로의 이름

① 『경국대전』의 속전(續典)으로서 『속대전』을 편찬한 것은 영조이다. ② 속종 때 국경을 명확하게 하자는 청의 요구에 따라 조선과 청의 두 나라 대표가 모여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국경을 확정하여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1712). ③ 조선 인조 대 연분 9등법을 따르지 않고 풍년이건 흉년이건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시켰다. 이를 영정법이라 한다(1635).

<보기>

- 1433년(세종 15)에 편찬되었다.
- 각종 병론(病論)과 처방을 적었다.
- 전통적인 경험에 기초했다.
- 조선의 약재를 중시했다.

- ① 『향약집성방』 ② 『동의보감』
③ 『금요잡록』 ④ 『칠정산』

① 『향약집성방』은 세종 15년(1433)에 유효통, 노종례 등이 편찬한 의서로, 우리 풍토에 알맞은 약재와 치료 방법을 개발·정리하였다.

② 허준의 『동의보감』은 선조의 명에 의해 편찬되기 시작하여 광해군 2년(1610)에 완성한 의학 서적이다. ③ 강희맹은 성종 23년(1492)에 금양(경기도 시흥) 지방을 중심으로 한 경기 지

방의 농사법을 자신의 경험과 견문을 토대로 정리한 『금양잡록』을 편찬하였다. ④ 세종 24년(1442)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한 역법서인 『칠정산 내외편』이 편찬되었다.

11. <보기 1>의 밑줄 친 ‘이 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영의정 이원익이 아뢰기를, “각 고을에서 바치는 공물이 각급 관청의 방납인들에 의해 중간에서 막혀 물건 하나의 가격이 몇 배 또는 몇 십 배, 몇 백 배가 되어 그 폐단이 이미 고질화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마땅히 별도로 하나의 청을 설치하여 <u>이 법</u>을 시행하도록 하소서.”라고 하니 왕이 따랐다.	<보기 2> ㄱ. 이 법이 실시된 뒤 현물 징수가 완전히 없어졌다. ㄴ.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시험적으로 시행되었다. ㄷ. 과세 기준을 가호 단위에서 토지 결수로 바꾸었다. ㄹ. 풍흉의 정도에 따라 조세 액수를 조정하였다.
---	--

- ① ㄱ, ㄴ
③ ㄴ, ㄷ

- ② ㄱ, ㄷ
④ ㄷ, ㄹ

정답 : ③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이 법’은 광해군 대 시행된 대동법이다.

ㄴ. 대동법은 이원익과 한백겸의 주장으로 선혜청을 설치하고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ㄷ. 대동법은 종래 호세(戶稅)로 징수하던 공물을 토지 결수에 따라 전세(田稅)화한 것으로 토지 소유의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세금을 거두었다. ㄱ. 대동법이 실시된 뒤에도 농민들은 진상이나 별공을 통해 토산물이나 특산물을 여전히 부담하였고, 지방 관아에서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징수하기도 하였다. ㄹ. 풍흉의 정도에 따라 조세 액수를 조정하는 것은 조선 전기에 시행된 답험손실법이다.

12. <보기>의 유물들이 발견되는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이른 민무늬 토기 • 닳은 민무늬 토기 • 닳은 민무늬 토기 • 빗살무늬 토기	
--	--

- ① 세형 동검, 잔무늬 거울 등을 사용하였다.
② 고인돌과 돌널무덤을 사용하였다.
③ 공주 석장리 유적과 청원 두루봉 동굴 유적이 대표적인 유적지이다.
④ 갈돌과 갈판 등 간석기를 사용하였다.

정답 : ④

제시된 보기의 유물은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 토기들이다.

④ 갈돌과 갈판은 신석기 시대에 널리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주로 야생 열매나 곡물을 가는 용도로 사용되던 조리도구이다.

① 세형 동검과 잔무늬 거울은 철기 시대의 대표적 유물이다. ② 고인돌과 고인돌의 지하 구조인 돌널무덤(석관묘)은 청동기 시대 군장의 무덤으로 제작되었다. ③ 공주 석장리 유적과 청원 두루봉 동굴 유적은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이다.

13. <보기>에서 설명하는 나라의 법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은력(殷曆) 정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나라에서 대회를 열어 연일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영고(迎鼓)라고 한다. 이때 형옥(刑獄)을 중단하여 죄수를 풀어 주었다.

-『삼국지』 권30, 「위서」 30 오환선비동이전-

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게 했다.

② 도둑질을 하면 그 물건의 12배를 변상케 했다.

③ 형벌이 매우 엄하여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사람은 노비로 삼았다.

④ 남녀 간에 간음을 하거나 투기하는 부인은 모두 죽였다.

정답 : ①

제시된 자료는 부여의 제천행사인 '영고'에 대한 내용이다.

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게 한 것은 고조선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② 부여는 하나의 물건을 훔칠 경우 12배로 배상하게 하는 1책 12법이 존재하였다. ③ 부여는 형벌이 엄격하여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들을 노비로 삼았다. ④ 부여는 남녀 간에 음란한 짓을 하거나 부인이 질투하면 모두 죽였으며, 질투하는 것을 더욱 미워하여 죽이고 나서 그 시체를 나라의 남산 위에 버려서 썩게 하였다.

14. <보기>의 글을 쓴 인물의 주장과 같은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 과정은 가령, 지리적 조건, 인종학적 골상, 문화 형태의 외형적 특징 등에서 다소의 차이는 인정되더라도, 외관적인 소위 특수성은 다른 문화 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되어야 하는 독자적인 것은 아니며, 세계사적·일원론적인 역사 법칙에 의해 다른 여러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로 발전 과정을 거쳐온 것이다.

① 민족 정신을 강조하여 우리의 고유한 특색과 전통을 찾았다.

② 신체호와 박은식의 사학을 계승하였다.

③ 역사학의 주관적 해석을 배제하고 문헌 고증을 중시하였다.

④ 한국사의 발전과정을 사회 경제 사학의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백남운의 『조선봉건사회경제사』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사회 경제사학에 대한 내용이다.

④ 사회 경제사학은 일제의 한국사에 대한 정체성론을 비판하면서 한국사도 사적 유물론에 입각한 세계사적 보편성 위에 체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①, ② 우리 민족의 자주성과 우리 문화의 우수성 및 한국사의 주체적 발전을 강조하는 일련의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자 했던 민족주의 사학에 대한 내용이다. ③ 개별적 사실을 개관적으로 밝히려는 순수 학술 활동을 목표로 전개한 실증 사학에 대한 내용이다.

15. <보기>의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신라 - 건원(建元)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만들었다.

ㄴ. 가야 - 대가야가 멸망하면서 가야 연맹이 완전히 해체되었다.

ㄷ. 고구려 - 낙랑군을 완전히 몰아내고 대동강 유역을 확보하였다.

ㄹ. 백제 - 수도인 한성이 함락되고 왕이 죽자 도읍을 웅진으로 옮겼다.

① ㄱ-ㄴ-ㄷ-ㄹ

② ㄴ-ㄷ-ㄹ-ㄱ

③ ㄷ-ㄹ-ㄱ-ㄴ

④ ㄹ-ㄱ-ㄴ-ㄷ

정답 : ③

ㄷ. 고구려가 낙랑을 축출한 것은 미천왕 대인 313년의 사실이다. ㄹ. 백제 수도 한성이 함락되고 도읍을 웅진으로 천도한 것은 475년의 사실이다. ㄱ. 신라 법흥왕 대인 536년 처음으로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ㄴ. 신라 진흥왕 대인 562년 대가야를 복속시켰다.

16. <보기>의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왕이 행차에서 돌아와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월성의 천존고(天尊庫)에 간직하였다. 이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나으며,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마에는 날씨가 개며, 바람이 잦아지고 물결이 평온해졌다. 이를 만파식적으로 부르고 나라의 보물이라 칭하였다.

-『삼국유사』-

① 녹읍을 부활시켰다.

② 9주 5소경을 설치하였다.

③ 정전을 지급하였다.

④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하였다.

정답 : ②

제시된 사료는 『삼국유사』 기이편에 서술된 만파식적과 관련된 내용이며, 밑줄 친 ‘왕’은 신문왕이다.

② 신문왕 대 전국을 9주로 나누고, 수도가 동남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5소경을 설치하였다.

① 신문왕 대에는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고, 경덕왕 때 녹읍이 부활되었다. ③ 성덕왕 대 강화된 토지 지배력을 바탕으로 일반 백성에게 정전(丁田)을 지급하였다. ④ 고구려 부흥 운동을 전개한 안승을 문무왕은 금마저(익산)에 안치하고 백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674년에는 보덕국왕으로 임명하여 고구려 유민을 모아 당의 세력을 축출하는 데 이용하였다

17. <보기>의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제1관> 조선국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제7관> 조선의 연해 도서는 지극히 위험하므로 일본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함을 허가한다.

- ① 만동묘가 철폐되었다.
- ② 이범윤이 간도 시찰원으로 파견되었다.
- ③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되었다.
- ④ 영남 유생들이 만인소를 올렸다.

정답 : ①

제시된 조약은 1876년 2월에 체결된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이다.

① 만동묘 철폐는 흥선 대원군 집권기(1863~1873)의 사실이다. 흥선 대원군은 만동묘를 비롯하여 봉당 근거지로서 백성을 수탈해 온 서원을 47개소만 남긴 채 대폭 정리하였다.
② 대한 제국은 교민 보호를 위해 북간도에 이범윤을 간도 시찰원으로 파견하였다(1902). ③ 개화 정책 전담 기구인 통리기무아문은 1880년 12월에 설치되었다. ④ 『조선책략』의 유포에 반대한 영남 만인소는 1881년의 사실이다. 경상도 지방을 근거지로 하고 있던 이만손, 홍재학 등의 유생들은 황쑨센(황준헌)의 『조선책략』을 반박하고, 개항과 통상에 반대하면서 영남 만인소를 제기하였다.

18. <보기>의 조선시대 사건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기묘사화	ㄴ. 을묘왜변
ㄷ. 계유정난	ㄹ. 무오사화

① ㄱ-ㄴ-ㄷ-ㄹ

② ㄴ-ㄷ-ㄹ-ㄱ

③ ㄷ-ㄹ-ㄱ-ㄴ

④ ㄹ-ㄱ-ㄴ-ㄷ

정답 : ③

ㄷ. 계유정난은 1453년 수양대군(세조)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일으킨 사건이다. ㄹ. 1498년 훈구 세력은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빌미로 김종직 일파를 세조에 대한 불충의 무리로 몰아간 무오사화를 일으켰다. ㄱ. 1519년 조광조가 반정 공신들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공신의 위훈을 삭제하자, 이에 반발하여 기묘사화가 일어났다. ㄴ. 1555년(명종 10) 왜선 70여 척이 전라남도 연안을 습격하는 을묘왜변이 발생하였다. 을묘왜변의 발생으로 조선과 일본의 국교는 단절되었으며, 삼포왜란(1510)을 계기로 설치되었던 임시 군사 기구인 비변사는 상설 기구화되었다.

19. <보기>는 동학농민군이 제시한 「폐정개혁안」 12개조 중 일부이다. 이 중 갑오개혁에 반영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무명의 잡다한 세금은 일체 거두지 않는다.
- ㄴ. 토지는 균등히 나누어 경작한다.
- ㄷ. 왜와 통하는 자는 엄중히 징벌한다.
- ㄹ. 젊어서 과부가 된 여성의 재혼을 허용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 ②

ㄱ. 제2차 갑오개혁 때 발표된 흥범 14조의 6조 ‘인민의 조세는 모두 법령으로 정한 비율에 따르고, 함부로 명목을 더 만들어 과도하게 징수할 수 없다’는 내용은 조세 징수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가 함부로 무명잡세를 거둘 수 없음을 명시한 것으로, 폐정 개혁안 8조의 내용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ㄹ. 제1차 갑오개혁 때 군국기무처에서 제정한 법령에 ‘과부가 재혼하는 것은 귀천을 막론하고 자신의 의사대로 하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ㄴ, ㄷ. 갑오개혁의 한계점은 일본에 의해 강요된 타율적인 개혁이었다는 점과, 군사 개혁에 소홀했다는 점, 그리고 농민들이 절실하게 원하고 있던 토지 제도의 개혁 등이 포함되지 않아 농민들로부터 외면당하였다는 점이다.

20. <보기>의 독립운동단체 결성 시기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ㄱ. 조선 의용대
- ㄴ. 의열단
- ㄷ. 참의부
- ㄹ. 대한 광복회
- ㅁ. 근우회

① ㄱ-ㄴ-ㄷ-ㄹ-ㄱ

② ㄴ-ㄷ-ㄹ-ㄱ-ㄱ

③ ㄷ-ㄱ-ㄹ-ㄴ-ㄱ

④ ㄱ-ㄴ-ㄷ-ㄹ-ㄱ

정답 : ④

ㄱ. 대한 광복회는 1915년 대구에서 박상진, 채기중, 김좌진 등이 군대식으로 조직한 무장 독립 단체이다. ㄴ. 의열단은 1919년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 윤세주 등 열혈청년 13인이 조직하였으며, 북경과 상해에 본부 및 폭탄 제조소를 설치하고 국내에 단원을 파견하여 1920년대의 의열 투쟁을 이끌었다. ㄷ. 참의부는 1923년 남만주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직할대로 설립된 무장 독립운동 단체이자 한인 자치 기관이다. ㄹ. 여성계의 민족 유일당인 근우회가 1927년에 신간회 자매단체로 조직되었다. ㄷ. 조선 의용대는 1938년 중국 한커우(漢口)에서 김원봉에 의해 조직된 무장 단체로 군관을 양성하고 국내와 만주 그리고 중국 내 각지로 파견되어 적의 후방을 교란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인력을 확보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海東韓國史